

인사말

종도 여러분!

오늘 뜻깊은 ‘교육불사 후원의 밤’ 행사를 맞아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교육불사를 통한 불교중흥을 서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100년전 만해 한용운 스님부터 작년에 입적하신 법정스님까지 종단의 대덕스님들이 항상 강조하셨던 도제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대의 많은 어른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도제불사를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혜명을 이을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당대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오늘날 우리 종단을 바라봅니다. 스님들은 1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 지역 곳곳에 승가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교육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박사 스님들이 300여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선대의 스님들께서 바라는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지 자문해봅니다. 이제 우리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일체 중생의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출가한 초발심자들에게 그 고민의 무게만큼 부처님 교법을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고민해봅니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종교적 가르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자성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단 인재양성에 대해 좀 더 깊이,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성찰해보자는 것입니다. 승가라는 외형은 크게 성장하였는데, 그만큼 인재불사의 핵심인 교육내용과 교육환경도 성장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그리고 최근,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종단 안팎에 제안하면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불교적 역할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사의 근본에는 스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고, 또 각 승가대학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교역자 스님들이 정말로 소중한 결사의 첫 단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종단의 종진스님들과 함께 ‘승가교육
진흥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승가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종단의 승가교육이 조금은
변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정예하와 종단의 주요 종진
스님들이 승가교육 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또 공감해주신 것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0년간 종단의 어른스님들과
종진스님들이 종단의 도제양성을

**위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직접 기금 마련에도 손수
동참해주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만큼 현재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심이 종단 내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총무원장으로서 그 공심의
무게를 무한책임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그동안 종단에서는 승가교육의

중요성이 너무나 평이하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작 승가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말로만 논의되었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첫 페이지는 ‘승가교육’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다시 생각해보고, 승가교육이 종단발전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육불사 후원의 밤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종단을 대표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교육불사가 종단 발전의 가장 근본임을

**잊지 않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